

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(MERCOSUR) 가입 전망

■ MERCOSUR 상설재판소는 지난 22일 파라과이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고 베네수엘라의 가입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에 적법 판정을 내림.

- MERCOSUR는 91년 EU를 벤치마킹하여 역내 정치·경제 통합 추진을 위해 출범한 기구로 인구는 4억 명, 규모는 세계 4~5위의 경제블록임.

■ 베네수엘라의 가입 허용 결정은 파라과이의 루고 대통령 탄핵 사태(6.29)에 대한 처벌 조치가 직접적인 계기임.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브라질의 지우마 대통령의 경제적 실용주의 노선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견해가 있음.

- MERCOSUR 회원국들은 파라과이 대통령 탄핵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강하게 비난하며 파라과이의 정회원 자격을 1년간 정지조치시킴.
- 그리고 그동안 파라과이의 비준거부로 가입이 보류되어 온 베네수엘라를 정회원으로 가입시킴.
- 하지만 이번 결정이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의 압력 하에 독단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외교적 논란과 반대여론이 일고 있음.

■ 좌파적 성향이 강한 베네수엘라의 가입으로 MERCOSUR의 개방성이 낮아질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그 경제적 혜택은 클 것으로 전망됨.

- 베네수엘라의 가입으로 MERCOSUR와 미국 간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, 브라질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여 이러한 마찰을 조율할 것으로 기대됨.
-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됨.
 - 베네수엘라는 2800만 명 규모의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민소득(3100억불)의 대부분이 석유수출에서 발생하고, 농산품과 제조업품은 수입에 의존함.
 - 브라질은 제조업 분야 수출을 통해 베네수엘라와의 교역에 있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, 이번 가입으로 브라질의 제조업 품이 그동안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여 왔던 중국 물건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분석됨.
 - 또한 베네수엘라의 석유, 브라질의 심해 석유(pre salt),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셰일가스 매장량에 힘입어 MERCOSUR는 경쟁력 있는 '에너지 블록' 이 될 것으로 전망됨.

(이시은 연구원)